

신자유주의 시대 사적 복수의 시스템화와 정의의 탈정치화

—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를
중심으로*

안 혜 연**

요약

본 논문은 2020년대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사적 복수 서사가 단순한 개인적 응징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탈정치화하는지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를 중심으로 사적 복수의 외주화, 이원화, 플랫폼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데이비드 갈런드의 표출적 정의, 웬디 브라운의 통치 합리성 비판, 사라 아메드의 정동 경제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중의 처벌 정서가 스펙터클의 소비 회로로 포획되는 인과 사슬을 규명하고자 했다.

첫째, 〈모범택시〉를 통해서는 복수가 철저한 비용 산정에 의해 거래되는 정의의 외주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의는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시민이 공적 가치를 숙의하는 정치적 주체가 아닌 사적 비즈니스의 소비자로서 재배치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는 사법 체계 내부자가 스스로 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초월적 폭력을 행사하는 정의의 이원화를 추적하였다. 슈미트·아감벤의 예외상태 논리와 아메드의 역겨움의 수행성을 결합하여, 역겨움 발화가 가해자를 경계 대상으로 고착시키는 동시에 목격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대중을 수동적 목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6009792)

**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격자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민사형투표〉에서는 사적 제재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다수결 알고리즘과 결합한 정의의 플랫폼화를 고찰하였다. 대중의 사법 불신 정서를 자극하는 공포의 정동 정치학과 위기 선동을 통해 정치적 숙의의 대상이어야 할 정의가 찬반의 데이터 수치로 치환되는 디지털 포퓰리즘의 징후를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세 텍스트에 나타난 사적 복수의 시스템화는 대중에게 극단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야기한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텍스트 내부의 명시적인 자기반성적 서사와 비판적 거리감마저도 대중문화 시장의 정동 경제 회로 안으로 포섭되어 스펙터클로 무력화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숙의해야 할 정치적 주체인 호모 폴리ტი쿠스는 각각 소비자(외주화), 수동적 목적자(이원화), 익명의 클릭자(플랫폼화)로 변모하며 증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 사적 복수, 탈정치화, 정동 경제, 정치적 주체, 신자유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목차

1. 들어가며: 정의의 탈정치화와 복수의 시스템화
2. 정의의 외주화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재편: 〈모범택시〉
3. 정의의 이원화와 초월적 폭력의 예외상태: 〈지옥에서 온 판사〉
4. 정의의 플랫폼화와 디지털 포퓰리즘: 〈국민사형투표〉
5. 나오며: 소비되는 정의와 정치적 주체의 증발

1. 들어가며: 정의의 탈정치화와 복수의 시스템화

2020년대 한국 대중문화 지형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현상은 복수극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압도적인 양의 사적 복수 서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복수극이 피해자의 개인적 원한과 그로 인한 파멸이라는 비극적 미학에 천착했다면 최근의 복수극은 복수가 수행되는 방식과 구조

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제 복수는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의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 의해 대행되거나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하나의 견고한 체제(system)로 작동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모범택시>(2021), <더 글로리>(2022~2023), <비질란테>(2023), <국민사형투표>(2023), <지옥에서 온 판사>(2024) 등은 공통적으로 복수가 전문 서비스로 거래되거나 영웅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작품 모두 2020년대 복수 서사의 대유행 속에서 유의미한 성취를 거두었으나, 본 논문은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라는 세 텍스트에 집중하고자 한다. <더 글로리>가 피해자 개인이 설계한 고전적·윤리적 복수 서사에 가깝고, <비질란테>가 다크 히어로 개인의 신념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작품은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정의가 변모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시스템적 분기점인 ‘외주화’, ‘이원화’, ‘플랫폼화’를 가장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¹⁾

본래 복수극은 공적 복수 대리인(사법 제도나 국가 등)에게 단죄할 힘이 없거나 처벌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대응 기제로 정당화되어 왔다.²⁾ 근대 이후의 복수 서사는 법치주의와 공적 정의의 이상이 어떻게 좌절되고 파국을 맞는지 비추는 사회적 거울로 기능했다. 한국 드라마 역시 1990년대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거쳐 2000년대 들어 국가나 권력 기관의 부패를 겨냥하는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강화하며 진화해 왔다.³⁾ 주목할 점은 기존의 복수 서사들이 사적 복수의 정당성을 획득하면서도 일종의 자정 기제를 통해 윤리적 파국을 방어해 왔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중반 흥행한 김지우 작가의 복수 3부작(<부활>, <마왕>, <상어>)은 복수

1) 다만 이 세 양식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누적된 사법 불신과 위협의 개인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토대 위에서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공적 정의의 진공을 메우려는 세 가지 동시적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스티븐 파인먼, 이재경 옮김, 『복수의 심리학』, 반니, 2018, 19~20면 참조.

3) 김륜희, 「한국 장르물 드라마의 발전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 한국콘텐츠학회, 2024, 171-172면.

주체와 대상이 모두 파멸하는 결말을 통해 법질서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보존하며, 특히 복수자를 희생제와의 제물로 삼음으로써 카타르시스 대신 “애도를 통한 성찰과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⁴⁾ 2010년대 박재범 작가의 영웅 3부작(〈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 역시 반영웅의 사적 복수와 소시민의 연대를 결합하면서도 코미디라는 장르적 유희화를 통해 제도와의 정면 충돌을 우회한다.⁵⁾ 즉, 2020년 이전의 복수 서사는 복수 주체의 희생이나 성찰, 또는 장르적 우회를 통해 최소한의 윤리적 균형과 사법 질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등장한 복수극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균형이 깨진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자리한다. 국가가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리스크를 철저히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감각은 사법적 불평등에 대한 체감으로 전환된다.⁶⁾ 2020년대의 복수 서사는 이러한 대중의 열망이 플랫폼 자본주의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미디어 환경과 결합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면화는 시민을 공격 가치를 숙의하는 정치적 주체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비용-편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oeconomicus)로 재편하며, 복수 서사 역시 고도로 조직화된 대행 서비스나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스템의 형태를 띠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가 초래한 정치적 주체성의 공백이 어떻게 대중문화적 복수 서사의 강력한 정동적 흡인력과 접합되어 체제 유지 기제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4) 권양현, 「TV드라마 〈상어〉에 나타난 파국의 정후와 구원의 가능성」, 『드라마연구』 47, 한국드라마학회, 2015, 26면.

5) 이다은, 「박재범 드라마 연구-반영웅 3부작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7), 2022, 328-329면.

6)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15-16쪽; 위험사회에서 계급적 불평등이 리스크의 불균등한 분배로 재구조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올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2006, 75-90면도 참조.

최근 2020년대 한국 드라마의 사적 복수 서사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는 복수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박노현⁷⁾과 백소연⁸⁾ 등의 연구는 최근의 복수극이 피해자의 윤리적 고뇌나 사회적 연대보다는 자본주의적 소비 논리와 결합하여 하나의 매혹적인 스펙터클이자 오락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두 번째는 사적 제재와 공권력(법적 정당성)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박상완⁹⁾, 정술·유정란¹⁰⁾, 하예준¹¹⁾의 연구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기능 부전이 어떻게 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중이 열광하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공권력의 한계 및 법치주의의 위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세 번째는 사적 제재의 수용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김윤진¹²⁾은 〈빈센조〉, 〈모범택시〉를 대상으로 드라마가 ‘대중-피해자’라는 인물군을 통해 시청자의 동일시를 유발하고, 경험적·정서적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신주진¹³⁾은 2000년대 이후 한국 TV드라마 복수극에 나타난 복수 정동의 이행 구조를 추적하면서 사회구조적 분노가 개인의 사적 복수로 치환되고 이것이 신보수주의 이데올로

7) 박노현, 「복수사회, 법치와 정의의 무능과 복수라는 권능: 드라마 〈모범택시〉·〈3인칭 복수〉·〈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2(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48-57면.

8) 백소연, 「〈모범택시〉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 『문화와 융합』 4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027-1030면.

9) 박상완, 「공권력에 의한 사적 제재의 수행 원리와 아젠다 고찰」, 『현대문화이론연구』, 98, 2025, 203-208면.

10) 정술·유정란, 「〈지선전〉과 드라마 〈지옥에서 온 편사〉로 본 지옥 서사의 변용과 그 의미」, 『공존의 인간학』 14,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5, 392-401면.

11) 하예준, 「분열된 영웅의 사회: 『살인자』·『난감』, 『비질란테』의 반영웅 서사 연구」, 『한국말글학』, 한국말글학회, 2024, 46-49면.

12) 김윤진,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광: TV 드라마 속 사적 제재의 정당화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3) 신주진, 「복수 정동의 이행 구조 연구: 2000년 이후 한국 TV드라마 복수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기의 강화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논의들은 복수가 자본주의화되었다는 현상적 진단에 머무르거나 사적 제재가 지니는 법적·윤리적 한계를 개별 작품의 틀 안에서 지적하는 데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첫째, 자본의 논리와 사법의 실패가 결합하여 사적 복수 자체가 공권력을 대체할 만큼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하나의 대안적 시스템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 둘째, 이들 텍스트가 사적 복수의 한계와 허위성을 스스로 고발하는 자기반성적 서사를 내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공론장의 변혁을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적 스펙터클로 포섭되어 버리는 문제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본고는 텍스트가 사회적 탈정치화 현상을 서사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성찰적 층위와, 텍스트 자체가 대중문화 시장 안에서 탈정치화를 매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의 층위 사이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 내장된 자기반성적 장면들—사적 제재의 반인륜성에 대한 자각이나 공적 사법 수호자의 고뇌—은 단순히 사적 복수를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 서사적 성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판적 거리감마저도 대중문화 시장의 정동 경제 회로 안으로 포섭된다는 사실이다. 서사 내부의 성찰성은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집행될 사적 응보의 카타르시스를 배가하는 서스펜스적 전제 조건으로 도구화된다. 즉, 재현된 성찰성이 대중문화 자본의 포섭 회로를 거치며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인 탈정치화 효과로 변모하는지 그 인과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논지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출발점은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신자유주의 비판이다. 브라운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국가·시민·영혼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형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둘러싸고 심의하던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를 소거해 가는 구조를 분석한

다.¹⁴⁾ 신자유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가 사법 영역에 침투할 때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정의의 사사화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정의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불량 서비스로 격하되고 시민들은 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주체성을 잃은 채 각자도생의 리스크 관리만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 구조적 공백이 왜 하필 사적 복수 욕망으로 귀결되는가라는 질문은 데이비드 갈런드(David Garland)의 통제 문화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갈런드는 후기 현대 국가가 범죄 통제의 실질적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도구적 해결을 포기하고 공적 분노를 의례적으로 표출하는 표출적 정의(expressive justice)로 퇴행한다고 분석한다.¹⁵⁾ 이 표출적 정책에 호응하는 대중은 복잡한 속의 제도를 우회하여 즉각적이고 가혹한 응보를 열망하는 집합적 처벌 정서를 일상적으로 체화하게 된다.¹⁶⁾

그렇다면 이 처벌 정서는 대중문화를 통해 어떻게 조직되고 증폭되는가.

사라 아메드(Sara Ahmed)에 따르면 정동은 주체나 기호 내부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기호가 사회적 유통망 안에서 반복 순환할 때 비로소 발생하고 축적되는 가치의 효과다.¹⁷⁾ 아메드는 정동 개념을 백인 민족주의 담론이 무고한 소수자나 이주민을 상상적 위협으로 구성하는 과정, 즉 지배 집단이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정동적으로 가공하여 스스로를 '피해를 받

14) 웬디 브라운, 배충효·방진이 옮김, 『민주주의 살해하기』, 내인생의책, 2017, 147면.

15)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01, p. 110. 갈런드의 분석은 원래 영미 형사사법 제도의 역사적 변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고는 그 논리 구조를 한국 대중문화의 사법 불신 정서 분석에 확장 적용한다.

16) David Garland, *Ibid.*, pp. 144-145.

17)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43-44면; 108면. 아메드는 "감정의 대상은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긴장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끈적이거나 정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서술하며 정동의 이동과 축적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감정이 정동적 가치의 형태로 축적된다"고 명시하고, 기호가 더 많이 순환할수록 더 많은 정동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은 존재로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으로 규명한다.¹⁸⁾

본고는 이 아메드의 정동 경제를 대중문화의 수용 구조 분석으로 전용하고자 한다. 물론 드라마 속 대중을 결속하는 분노는 허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 강력 범죄 피해와 사법 불평등이라는 실존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미디어가 그 피해 서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과잉 기호화하고 반복 유통하는 구조는 아메드가 지적한 정동 경제의 순환 회로와 같다. 잔혹한 범죄 기호의 무제한적 순환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법제도의 공백 앞에서 실존적 공포를 내면화하게 만들며,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라는 취약성의 감각을 체화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주체로 재구성된 대중의 결속은 범죄를 배태한 거시적 구조와 사회적 조건의 개혁이 아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학적인 처벌적 정동으로 수렴된다. 대중의 정당한 분노가 정치적 공론장의 속의로 이행되지 못하고 처벌이라는 즉자적 소비로 귀결되는 이 인과적 메커니즘은 2020년대 한국 복수 서사가 지닌 탈정치화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해명하는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복수가 철지한 분업과 비용 산정에 의한 외주화(〈모범택시〉), 법적 권위의 내적 도용과 초월적 폭력을 통한 이원화(〈지옥에서 온 판사〉), 그리고 알고리즘과 포퓰리즘이 결합된 플랫폼화(〈국민사형투표〉)의 형태를 취하며 시스템화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적 변모가 궁극적으로 정의를 사유하는 정치적 주체(호모 폴리틱우스)를 각각 소비자(외주화), 수동적 목격자(이원화), 익명의 클릭자(플랫폼화)라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모시키며 증발시키는 탈정치화의 이데올로기적 기제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18)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04면.

2. 정의의 외주화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재편: 〈모범택시〉

1) 공적 사법의 공동화와 사적 대행 시스템의 출현

〈모범택시〉(SBS, 2021)는 “정의를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홍보 문구 아래 방영된 드라마로, 공식 부제는 ‘복수 대행 서비스’이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조직 ‘무지개운수’가 있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국가의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한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전직 707 특수임무단 장교 출신 김도기(이제훈)를 필두로 재력을 갖춘 대표 장성철(김의성), 해커 안고은(표예진), 엔지니어 최경구(장혁진)와 박진언(배유람)이 팀을 이룬다. 드라마는 무지개운수가 대행하는 사적 복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 강하나(이솜)가 대립하면서 서사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적 대행 체제의 전면화는 후기 현대 위험사회가 직면한 거버넌스적 위기, 즉 국가가 범죄 통제의 실질적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주권 국가의 신화가 흔들리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¹⁹⁾ 〈모범택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적 사법 시스템이 거르지 못한 법적 공백을 사적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통치 합리성을 서사화한다.

〈모범택시〉 시즌 1은 짓갈 공장 노예 사건, 학교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보이스피싱 등 한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으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실화를 모티프로 한 사건들을 다룬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해자 관련 서사를 누락하는 동시에 현실을 복사라도 하듯 범죄자의 악행을 뚜렷이 부각”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어, “범죄가 발생되기까지의 사회적 맥락 보다는 범행 자체의 잔혹함, 범죄자 개인의 악마성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19) David Garland, Ibid., p. 110; pp. 154-155

.²⁰⁾ 범죄자의 이득을 곧 피해자의 손실로 상정하는 제로섬 논리 속에서 절대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는 서사 내에서 집중적으로 전시되고 소비된다.²¹⁾ 실제 범죄의 끔찍함이 ‘악마’와 ‘무고한 희생양’이라는 이분법적 기호로 과잉 기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잉 기호화된 피해자의 무고함과 가해자의 악마성이라는 기호들은 대중문화 시장의 유통망 내에서 반복 순환하며 분노와 처벌 욕구라는 정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정동은 주체 내부에 고착된 실체가 아니라 기호들이 사회적 유통망 안에서 반복 순환할 때 비로소 발생하고 누적되는 경제적 동학을 지닌다.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회차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재생산될수록 대중의 분노는 공권력의 시스템적 결함을 추궁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신 그 정동적 에너지는 무지개운수라는 사적 기업이 제공하는 폭력 서비스의 스펙터클을 향한 열광으로 환수되며, 사적 복수는 상처받은 피해자의 정서적 절대성 위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실제 사건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미디어가 직조한 정동 경제의 순환 회로에 포섭됨으로써 구조에 대한 성찰은 유예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복수가 수행되는 형식의 변화이다. 무지개운수라는 사적 기업이 제공하는 복수 대행 서비스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시장의 논리로 대체한다. 결국 피해자는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복수를 의뢰하는 소비자로 변모한다. 〈모범택시〉의 의뢰 접수 절차는 복수가 감정적 폭발이 아닌 정밀하게 설계된 프로젝트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 백소연, 앞의 논문, 1029면.

21) David Garland, Ibid., p. 11.; 이 서사 전략을 갈런드의 ‘피해자의 귀환(The return of the victim)’으로 설명한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무지개 모범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용 자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의뢰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 미터기는 계속 켜져 있을 예정이에요. 운임은 모든 의뢰가 종료된 뒤 후불 정산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제 모범택시에 의뢰를 맡기고 싶다면 화면 좌측의 파란 버튼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 화면 우측의 빨간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즌 1, 1화)

이 의뢰 시스템에서 복수의 집행 과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시각적 은유는 택시 미터기다. 김도기가 사적 복수를 설계하고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스펜스의 국면마다 화면에 반복 지시되는 미터기는 공적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사적 고통이 비용 및 화폐 가치로 정량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교환 논리를 표상한다. 정의는 더 이상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리스크 계산과 비용 산정에 의해 거래되는 사적 비즈니스의 소비재로 격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시민이 사회적 모순의 구조적 원인을 숙의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에서 이탈하여 철저히 자신의 비용편익을 계산하고 정의라는 완제품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송받기를 원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 안에서 복수의 주체인 김도기의 역할은 전통적인 자경단 영웅과 사뭇 다르다. 김규연은 원작 웹툰을 분석하며 김도기를 정의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며 철저히 고객의 의뢰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인’으로 규정한다.²²⁾ 드라마 속 김도기는 자신의 존재를 법의 공백이 낳은 필연으로 상정할 뿐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불법 동영상 유통 피해자가 동영상들을 다 날려달라고 요청하자 데이터 서버 시설 전체를 폭파하고, 장애인을 착취한 젓갈공장 사장은 젓갈 통에 가두어 응징하는 방

22) 김규연, 「2010년 웹툰의 반영웅 서사 연구: 영웅성과 사적복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인문융합콘텐츠전공, 석사논문, 2023, 17면.

식은 의뢰인의 요구 사양에 따른 맞춤형 처리에 가깝다. 이들에게 정의 실현이란 교화나 갱생이 아니라 확실한 격리와 응보라는 상품 가치의 효율적 제공에 가깝다.

특히 복수의 실무자인 김도기는 상품화된 정의를 기계적 수행성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사적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분노나 감정적 동요를 극도로 배제한 채 사전에 메뉴얼화된 전술과 프로토콜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변장과 위장 침투,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무술 액션으로 대변되는 그의 신체적 수행은 사법적 응징을 이성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하나의 표준화된 공정이자 직무로 전환한다. 이러한 기계적 수행성은 정의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숙의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적 결함이나 절차적 오차 없이 신속하게 도달해야 하는 완제품 서비스이자 배송 가능한 상품임을 몸소 증명한다. 감정이 소거된 자리에 들어선 정밀한 기술적 집행은 대중에게 사적 복수를 고효율의 합리적 비즈니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정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점은 무지개운수의 자본가 장성철의 발언에서 한층 분명해진다. 그는 거실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구절을 걸어두고 그 액자 아래에서 김도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에게 지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길 거야. 우리 주변의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생각이야. 난 그들을 교화시킬 거야. (시즌 1, 2화)

“교화시키겠다”는 선언과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는 실행 사이의 이 자기모순은 무지개운수가 표방하는 정의가 애초부터 갱생이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장성철에게 정의란 오염원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격리 그 자체이며, 교화는 그 격리를 도덕적으로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수의 외주화는 정의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공공재가 아니라 유능한 민간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구매하고 배송받아야 할 소비재로 바꾸어 놓는다. 공권력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로켓 배송’과 같은 신속함에 대비되는 느리고 답답한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전시된다. 법의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불량 서비스로 격하되는 반면 무지개운수의 즉각적인 응정은 소비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커스텀 서비스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러한 복수의 외주화는 필연적으로 정의의 계급화라는 한계를 노정한다. 무지개운수는 약자의 편에 선다는 공정성을 표방하지만, 장성철의 막대한 자본이 없다면 모범택시는 애초에 시동조차 걸 수 없다. 이는 정의가 이미 국가의 공적 책임에서 민간 자본의 시혜적 영역으로 이양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 정동 경제의 순환과 정의의 계급적 소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라마가 유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 기호들은 분노와 처벌 욕구라는 정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회차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순환할수록 시청자와 대중은 제도적 대안을 숙의하는 시민이 아니라 사법 피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현하는 ‘상처받은 보편 주체’는 구조적 모순을 응시하는 정치적 시선을 차단당한 채 가해자라는 인격화된 악을 공동체로부터 도려내야 한다는 즉각적인 처벌적 정동에 포획된다. 이 주체가 체화한 상처와 공포는 아메드가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 분석에서 지적한 가상의 위협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공식 사법제도의 실패라는 실제적 경험이 미디어의 반복적인 과잉 기호화를 거쳐 개인화된 피해 서사로 고착된 결과이다. 그러나 상처의 발생 기원이 실재하든 혹은 구성되든 간에 주체를 탈정치화하는 정동 경제의 통치 메

커니즘은 동일한 궤적으로 작동한다.²³⁾

피해자 기호의 유통이 충분한 정동적 가치를 축적한 이후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로 재구성된 주체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행위는 가해자 개인을 사회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응징하는 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공적 정의의 재건을 위한 집합적 정치 행동을 도모하는 대신 처벌의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는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복수라는 완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적 소비 계약의 당사자로 재배치된다.

그러나 <모범택시>의 서사 구조를 단순히 사적 제재의 카타르시스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텍스트 내부에는 복수 시스템의 도덕적 정당성과 사적 제재가 지닌 본질적 한계를 끊임없이 심문하는 자기반성적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강하나 검사와 김도기의 대립 장면과 사설 감옥의 실상이 폭로되는 장면이다.

강하나: 당신들이 하는 게 정의 같지?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당신은 당신이 경멸하는 그놈들과 다를 게 없어. 똑같은 범법자라고.

김도가: 그런데 왜 안 잡습니까? 범법잔데.

강하나: 기다려. 증거 찾을 테니까.

김도가: 그것도 못 찾아놓고 큰 소리친 겁니까? 증거는 어느 세월에 찾을 건데요? 증거인멸하고 도주한 다음에?

강하나: 뭐라고요?

김도가: 이래서 나 같은 놈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범인도 확실하고 정황도 분명한데, 증거 없다고 놓치는 게 당신들 현실인 거 아니까.

강하나: 우린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지 않으려는 것뿐이야.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11화)

23)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04-106면. 아메드는 특정한 담론 체계가 외부의 적을 침범자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체 스스로가 "피해를 받은 존재로 새로이 만들어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대변하는 강하나의 변론은 현실의 끔찍한 피해와 김도기의 냉혹한 시장 논리 앞에서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법의 절차는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의 고통을 무한히 유예시키는 시스템의 결함이자 지연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자기반성은 사설 감옥의 실상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무지개운수의 사설 감옥은 국가 형벌권이 포기했거나 실패한 영구적 단절을 직접 설계하고 독점 공급하는 공간이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피해자의 분노와 의뢰인의 요구만이 수감의 근거가 된다. 국가 형벌이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재사회화를 동시에 명분으로 삼고 종료 시점을 상정하는 것과 달리 사설 감옥의 감금에는 끝이 없다. 앞서 살펴본 장성철의 “교화시킬 거야”라는 선언은 바로 이 무기한 감금 앞에서 완전히 무효화 된다. 실제로 포획된 범죄자들이 사설 감옥 내부에서 “일어서지도, 다리를 뻗지도 못한 채 인간이 아닌 대우를 받으며” 갇혀 있었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적 복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반인륜적 폭력과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낳을 수밖에 없음이 서사 내부에서 자성적으로 폭로된다. 이처럼 〈모범택시〉가 내장한 자기반성적 장면들은 작품이 사회적 탈정치화 현상을 서사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비판적 장면들이 신자유주의적 대중문화 소비 메커니즘 속에서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력화의 이면에는 복수가 철저한 서비스 상품으로 거래되는 〈모범택시〉 특유의 서사 논리가 작동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윤리적 정당성보다 배송의 신속성, 이른바 ‘사이다 결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강하나 검사가 역설하는 법치주의의 변론과 사설 감옥의 반인도적 모순에 대한 폭로는 사적 복수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무고한 이미지와 가해자의 악마성이라는 기호들이 반복 순환으로 인해 분노의 정동적 에너지는 강하게 축적된다. 따라서 드라

마의 자기반성적 장면들과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자성적 폭로는 비판적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운수 멤버들이 직면한 서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최종적인 사적 징벌이 선사할 장르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서사적 장치로 흡수되어 버린다. 공적 사법 기구에 대한 불신과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자기반성적 서사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대중문화 시장이 제공하는 가장 자극적인 상품의 일부로 환수된다.

결국 〈모범택시〉가 보여주는 정의의 외주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체들을 철저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재편하며 사적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복수가 계약으로 완성될 때 피해자는 분노를 소비한 것이지 정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이 소비의 회로 안에서 계급적 불평등은 교묘하게 은폐되고 구조적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할 집합적 에너지는 개인화된 거래로 분산된다. 정치적 주체인 호모 폴리티쿠스는 이 외주화 시스템 안에서 미터기의 요금을 지불하고 복수의 결과물을 안전하게 배송받기를 원하는 정의의 소비자로 대체된다.

3. 정의의 이원화와 초월적 폭력의 예외상태: 〈지옥에서 온 판사〉

1) 공적 사법 체계의 무력화와 ‘법의 효력 중지’

2장에서 살펴본 정의의 외주화가 제도적 법질서와 사적 정의 공간의 계약적 분리를 보여주었다면 〈지옥에서 온 판사〉(SBS, 2024)는 그 분리선 자체를 사법부 안에서 해체한다.

이 드라마는 지옥의 재판관인 악마 유스티티아가 억울하게 살해된 엘리트 판사 강빛나(박신혜)의 신체에 빙의하여 1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죄인 10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

다. 강빛나는 낮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밤에는 지옥의 판관이 되어 자신이 풀어준 악인들을 직접 처단한다. 연쇄살인마에게 일가족을 잃은 사법 피해자이기도 한 형사 한다온(김재영)은 강빛나의 사적 처벌을 의심하며 대답한다.

이 작품의 핵심은 공적 사법 체계를 불신하고 무력화하는 주체가 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상징인 현직 판사 강빛나라는 점이다. 그는 낮의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경미한 판결을 내려 범죄자를 방면한다. 이는 제도적 법치주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공적 사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망 바깥으로 밀어내 사적 제재의 사정권(지옥) 안에 가두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사법 체계의 이중적 구도는 공간의 시각적 대치를 통해 구체화된다. 세속법이 낭독되는 인간 세계의 법정은 외견상 완벽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사법적 공백만을 양산하는 무능하고 차가운 공간으로 전시된다. 반면 밤의 공간인 지옥(게헨나)은 붉고 어두운 색조 등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신체적 훼손이 동반되는 가학적인 응보 폭력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비는 근대 형사 사법의 절차적 형식과 사법 제도 외부의 주권적 사적 응보가 철저히 분리되는 정의의 이원화 시스템의 구조적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²⁴⁾

정의의 이원화는 근대 형사 사법의 절차적 합리성이 권력 내부로부터 어떻게 공동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알레고리로 기능한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주권자란 법질서의 외부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체이며,²⁵⁾ 예외상태란 법의 형식적 지위(기표)는 유지되지만 그 내포적 구속력과 인간 수호 능력은 전면 정지된 일종의 진공 상태를 의미한다.²⁶⁾ 〈지옥에서 온 판사〉가 구현하는 사적 복수의 구조적 실체는 바로 이 공적 사법의 형식

24) 낮의 법정과 밤의 지옥이라는 이중 구도는 화면의 색조 변화, 악마 본연의 보라색으로 변하는 눈동자 클로즈업, 게헨나 인장이 새겨진 단검 등 화려한 시각적 장치들을 통해 극대화된다.

25) 칼 슈미트, 김항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 2010, 5면.

26) 조르주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9-13면.

과 초월적 정의의 실제 집행이 철저히 분리되는 법과 정의의 이원화 시스템에 있다. 강빛나가 죄인을 사적인 공간(지옥)으로 납치하여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라고 선언하는 순간, 세속법의 효력은 전면적으로 중지된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문정준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둘러싼 강빛나와 한다운의 대립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한다운: 재판 결과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세요?

강빛나: 전혀?

한다운: 판사님이 벌금형으로 풀어주지만 았으셨어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빛나: 검사 구형대로 1년 때렸으면요? 1년 뒤엔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아요?

한다운: 적어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겠죠. 판사님의 판결은 2차 가해입니다.

강빛나: 난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에요. 애꿎은 사람 들들 복지 말고 이 나라 법이나 원망하세요. (1화)

법의 집행관인 판사가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라고 냉소하는 대목은 사법부 스스로가 법의 효력 중지 상태를 공적으로 자인하는 역설적 예외상태를 불러온다. 숨방망이 처벌이 자아내는 세속법의 무기력함은 시청자의 분노를 자극하며 이는 곧이어 펼쳐질 지옥의 초월적 폭력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으로 이행된다. 이 점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의 카타르시스 구조는 〈모범택시〉와 다르다. 〈모범택시〉의 카타르시스가 법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생산되어 법의 실패와 사적 복수가 분리되어 존재했다면 〈지옥에서 온 판사〉의 카타르시스는 반드시 법정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통과하고 그 무능을 공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옥이라는 사적 응보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을 외부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절차를 관

통하여 그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키는 이 방식은 공적 정의의 재건이라는 정치적 필요성마저 초월적 사적 판타지 안으로 완전히 흡수해 버린다.

2) 역겨움의 수행성과 수동적 목적의 구조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최첨단 CG와 정교한 연출로 구현되는 지옥의 처벌 스펙터클은 그 화려함과 달리 타자의 특이성을 대면하는 어떠한 윤리적 과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강빛나가 죄인들을 계헨나로 송환하기 직전 구사하는 처벌의 논리는 “넌 지금부터 네가 저지른 짓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지옥의 룰이거든”이라는 가학적 대칭성에 기초한다. 지옥의 처벌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서사를 가해자의 육체에 정량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되돌려주는 정확한 동일 보복에 의존한다. 이는 근대 사법 제도가 지닌 계산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등가교환적 응보 논리의 극단적 재현이다. 이러한 잔혹한 인과응보의 서사 장치가 폭발적인 카타르시스를 생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미디어 산업이 대중의 처벌 정서를 효과적인 시각 상품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가해자의 악마성과 처벌의 잔혹함이라는 기호가 반복 순환할수록 정동적 가치가 더 많이 축적되는 현상은 사적 제재가 본격화되는 회차마다 상승하는 시청률을 통해 확인된다.²⁷⁾

이 카타르시스의 정동적 구조는 아메드가 규정한 역겨움의 수행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아메드에 따르면 역겨움은 대상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기호와 신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인접성을 밀어내고 주체와 대상 간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행적 효

27) 박상완에 따르면 〈지옥에서 온 판사〉는 사적 제재 장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회차마다 직전 회차 대비 시청률이 뚜렷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1화 6.8%→2화 9.3%, 3화 8.0%→4화 9.7%, 5화 9.3%→6화 13.1%, 7화 11.0%→8화 13.6%). 박상완, 앞의 논문, 216면.

과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수행적 구조, 즉 특정 대상에 역겨움의 기호를 낙인찍음으로써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이에 동조하는 주체들 간의 결속을 형성하는 방식은 그 대상이 가상의 타자이든 현실의 실제 강력 범죄자이든 간에 동일하게 관찰된다.

드라마가 극단적 클로즈업과 가학적 연출을 통해 반복 전시하는 교제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의 참혹한 범죄 기호들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도덕적 격분을 넘어선 감각적 역겨움을 촉발한다. ‘역겨워!’라는 즉자적 발화와 정동적 반응을 매개로 대중은 가해자를 공동체 밖으로 배설해야 할 절대적 오염원으로 고착시키는 동시에 가학적 처형 쇼를 분리된 거리에서 관람하는 수동적인 목격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결국 슈미트와 아감벤이 짚어낸 주권적 예외상태의 폭력은 아메드가 말한 역겨움의 수행성과 결합함으로써 대중을 제도 개혁의 주체가 아닌 초월적 처벌의 안전한 관람석에 안착시키는 탈정치화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완성한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폭력의 악순환을 형사 한다온을 통해 드러낸다. 그는 강빛나의 사적 처형 행각을 추적하며 “자격 없는 자는 테러에 불과하잖아요”라고 항의하며 사적 복수가 지닌 본질적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적 지지자이자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김소영 형사마저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하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가 고수하던 법치주의 신념은 급격히 붕괴된다. 법의 한계를 통감한 그는 강빛나를 찾아가 자신과 공모할 것을 제안한다.

한다온: 법? 그만 게 누구 지켜주는데? 내 가족 죽인 놈도, 소영 선배 죽인 놈도 기어이 살려두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이잖아! (...) 나 그 새끼 잡으면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산 채로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28)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06-215면. 아메드의 분석은 본래 인종화되거나 소수자화된 타자의 신체에 투사된 역겨움이 그들을 배제적 경계 대상으로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을 조명한다.

거야. 그러니까 빛나 씨, 내 곁에서 나 도와요. 법 대신, 당신 지옥의 방식으로 그놈 대가를 치르게 해줘. (8회)

이 장면은 정신적 지주를 잃은 한다온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 강빛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공적 형벌권을 초월적 권력에게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순간이다. 근대 법치주의와 공적 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가 제도의 최전선(경찰)이 공권력의 영구적인 한계를 자인하고 초법적인 예외상태의 권력(악마)에게 형벌권의 독점적 지위를 자발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법의 수호자마저 사적 응보의 도식 안으로 사법 권력을 양도해버림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모순을 정치적으로 개혁하려는 복잡하고 지난한 숙의 과정은 서사 내부에서 소거된다.

그러나 이 자성적 폭로는 텍스트 바깥의 정치적 성찰로 이어지지 않는다. 갈런드가 지적하듯 후기 현대의 대중은 복잡한 숙의 제도를 우회하여 즉각적이고 가혹한 응보를 열망하는 처벌적 정서를 체화하고 있으며,²⁹⁾ 이 정서적 구조 안에서 한다온의 법치주의 신념 붕괴는 정치적 개혁의 에너지로 수렴되지 못한 채 강빛나가 날리는 주권적 심판의 수사들을 구성하는 스펙터클의 일부로 흡수된다. 결국 〈지옥에서 온 판사〉가 보여주는 정의의 이원화는 두 층위에서 탈정치화를 수행한다. 슈미트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논리가 공적 정의의 재건이라는 과제를 초월적 판타지의 영역으로 이전시킨다면 아메드의 역겨움의 수행성은 그 판타지의 소비자를 가해자라는 경계 대상 앞에 모인 수동적 목격자들의 공동체로 고정시킨다. 사법 불신을 향해야 할 대중의 분노는 처벌 스펙터클의 관람 속에서 방전되고 공동체의 가치와 미래를 숙의해야 할 정치적 주체는 이 이원화 시스템 안에서 판타지적 폭력의 목격자로 고정된다.

29) David Garland, Ibid., pp. 144-145.

4. 정의의 플랫폼화와 디지털 포퓰리즘: 〈국민사형투표〉

1) 다수결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적 정의 소비

〈모범택시〉의 계약주의적 외주화와 〈지옥에서 온 판사〉의 정치신학적 이원화를 넘어, 〈국민사형투표〉(SBS, 2023)는 사적 복수가 후기 현대의 기술적 인프라와 결합하여 도달한 가장 극단적인 진화 형태인 정의의 플랫폼화를 전면화한다.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법의 내부자인 판사가 스스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법적 예외상태를 창출했다면 〈국민사형투표〉는 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 예외상태를 직접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일상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복수는 더 이상 고뇌하는 개인의 결단이나 초월적 존재의 심판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분노를 알고리즘화하여 유통하는 디지털 포퓰리즘의 형태를 취한다.

주인공인 전직 법학 교수 권석주(박성웅)는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 이민수(김권)를 처벌하기 위해 사형 투표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는 이민수가 유력 정치가인 모친의 권력으로 범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동 성착취물 유포, 보험 연쇄살인, 군 내 성폭력 등 현실에서 공분을 샀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건들을 투표 대상으로 설정하며 이러한 ‘무죄의 악마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권석주를 믿고 따르던 형사 김무찬(박해진)은 사형투표를 범죄로 간주하고 투표를 주도하는 개탈의 정체를 밝히고자 고군분투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적 복수 욕망을 국민의 정의라는 집합적 기표로 전환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정치·정동적 기제에 있다. 액정 화면을 가득 채우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버튼, 그리고 실시간으로 결정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근대 사법 체계의 핵심인 숙의와 합리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러한 기술적 통제와 시각적 압박은 PC방, 카페, 길거리 등 일상 공간

에서 대중이 마치 게임 스코어를 확인하듯 환호성을 지르며 투표 버튼을 누르는 군중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즉각성은 범죄 발생의 구조적 맥락이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숙의를 유예시키며 즉자적인 정동적 반응을 촉발하고 동원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스마트폰 액정을 터치하는 직관적이고 매끄러운 플랫폼 조작 방식은 사범 불평등의 거시적 배경을 사유할 성찰적 거리를 박탈한다. 대중은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자극적인 범죄 정보와 마주하는 순간 이성적 공론장의 판단 단계를 우회하여 분노와 처벌 욕구라는 정동적 카타르시스의 즉각적인 소비 회로로 포섭된다. 정의의 실현은 법정의 복잡한 절차론에서 벗어나 배달 앱이나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적 클릭의 영역으로 단순화된다.

1화에서 개탈은 아동 성착취물 유포범이 20억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겨우 1년 6개월의 형량에 그친 현실을 폭로하며 이렇게 선언한다.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해야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 자본과 권력에 기생한 비상식적인 법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숨 쉬며 살아가는데 소름이 끼쳐서 잠이 안 와요. (...)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을 받은 자, 법의 구멍을 찾아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무죄의 악마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뿐이고, 이제 우리 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입니다. (1화)

이 개탈의 선언은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동질적 진영으로 나누고, 정치를 민중의 일반의지로 환원하려는 이데올로기다.³⁰⁾ 개탈이 “자본과 권력에 기생한

30) 카스 무데는 포퓰리즘을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

비상식적인 법"을 비판하며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이라고 선언할 때 사법 엘리트는 부패한 집단으로 격하되고 스마트폰을 쥔 국민은 오염되지 않은 주권자로 호명된다. 이때 주동자가 착용한 '개탈'은 특정 개인을 지시하지 않는 텅 빈 기표로서 스크린 뒤에 숨어 버튼을 누르는 익명의 대중 전체를 대변한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행사하는 초법적 폭력의 잔혹함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술적 인터페이스 뒤에서 집단적 정의를 수행하고 있다는 도덕적 환상을 제공한다.

플랫폼이란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매개하는 디지털 인프라"로서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상호작용을 즉각적으로 만들며 네트워크 효과를 독점한다.³¹⁾ 개탈의 사형투표 시스템은 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논리를 사법의 영역에 직접 이식한 것에 가깝다. 근대 사법의 삼심제와 절차적 엄밀성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낡은 방식으로 격하되고, 문자 발송 후 정확히 한 시간 안에 50% 이상의 찬성표가 도출되어야 하는 실시간 피드백의 영역으로 정의가 치환된다. 사형 투표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들은 입체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이라기보다 대중이 즉각적으로 혐오하고 처단할 수 있도록 파편화된 범죄 이력의 집합체로 제시된다. 개탈이 "우리의 정의는 상식적입니다"라고 외칠 때 다수결 알고리즘은 타협과 합의라는 다원주의적 정치를 배제하고 단일한 도덕적 결정만을 강요하는 반정치적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략한다.³²⁾

이러한 사법 포폴리즘의 부상이 한국 드라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갈

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로 정의한다. 카스 무데, 크리스토폴 로비라 칼트바, 이제만 옮김, 『포폴리즘』, 교유서가, 2019, 15-16면.

31) 닉 서르닉, 심성보 옮김, 『플랫폼 자본주의』, 경공북, 2020, 43-48면 참조.

32) 얀 베르너 뮐러는 포폴리즘에서 말하는 일반의지 개념은 "공적 영역에서 합의적 과정을 거쳐 구성되기보다는 '상식'에 기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포폴리즘은 민중의 일반의지에 호소함으로써 강한 정체성을 가진 민중 주체(민중), 현재 상황(엘리트)에 도전할 수 있는 구체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명확한 논리를 규정"한다고 말한다. 얀 베르너 뮐러, 노시내 옮김, 『누가 포폴리스트인가』, 마티, 2017, 33면.

런드는 후기 현대 영미 형사정책에서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점차 정치화·포폴리즘화되어, 전문가와 형사사법 관료의 견해보다 여론과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한다.³³⁾ 정책은 더 이상 연구자와 행정 관료가 아니라 정치적 자문위원과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형성되며, 전문직 집단의 권위는 갈수록 박탈된다. 〈국민사형투표〉가 그리는 다수결 알고리즘에 의한 사법 대체는 이 포폴리즘적 형사정책의 극단적 예시라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포폴리즘적 호명이 대중의 분노를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저에 공포의 정동 경제와 물신 대상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선언은 단순히 객관적 위험을 알리는 중립적 보고가 아니다. 위기가 발생했다는 선언은 사실, 인물, 사건을 특정한 위협적 의미를 지닌 물신 대상으로 만들어낸다. 대상은 이 해석 과정을 거쳐 비로소 물신화되었음에도 원래부터 그러한 해악적 속성이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화되며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에 맞서 예외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통치 기제로 작동한다.³⁵⁾

〈국민사형투표〉에서 물신화되는 것은 공식 사법 체계의 미진한 처벌로 출소한 실제 강력범죄자들이다.³⁶⁾ 문제는 단죄의 표적이 되는 가해자의 위협이 가상인지 실재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그 개인이 납작한 악마라는 물신 대상으로 본질화되는 순간 사법 불신을 낳은 구조적 조건—자본과 권력이 법 앞의 평등을 체계적으로 훼손해온 역사—이 시야에서 증발

33) David Garland, Ibid., p. 142.

34) David Garland, Ibid., p. 143.

35)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73면. 아메드는 공포와 불안이 실제로 발생한 위기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님을 강조한다. 핵심은 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으며, 위기 선언은 새로운 종류의 방지책·경계 단속·감시를 정당화하는 통치 기제로 작동한다.

36) 사라 아메드, 앞의 책, 174면. 아메드의 원래 분석은 9·11 이후 미국·영국의 안보 담론에서 이 주민·소수자가 물신 대상화되는 메커니즘을 대상으로 하며, 본고는 이를 실제 강력범죄자가 미디어를 통해 물신화되는 드라마의 포폴리즘적 사법 담론에 적용한다.

한다는 사실이다. 개탈이 “무죄의 악마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다”고 외치며 대중의 집합적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는 이 위기 선언과 물신 대상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법 불신의 기호들이 미디어망을 통해 반복 순환할수록 처벌적 정동 가치는 축적되는 반면 범죄를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맥락은 물신화된 악인의 신체 뒤로 은폐된다. 그 모든 구조적 모순의 책임은 오직 악마화된 가해자 개인의 신체로 환원되고, 대중은 플랫폼이 설계한 다수결 알고리즘 안에서 이 물신화된 분노의 대상을 소비하며 즉각적인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정작 사법 불신을 낳은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사회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정치적 숙의의 기회는 그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 윤리적 책임의 익명화와 성찰적 재현의 스펙터클화

주목할 점은 〈국민사형투표〉가 이 플랫폼 시스템이 지닌 민주주의적 환상과 일반의지의 이데올로기를 텍스트 내부에서 비판하는 자기반성적 장면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개탈이 주장하는 순수한 민중의 투명한 의지가 사실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한다. 8화와 9화에 이르러 개탈들 사이의 내분과 사적 복수욕의 개입으로 인해 법의 수호자인 김무찬 형사마저 조작 영상과 편파적 편집을 통해 투표 대상이 된다. 또한 이민수의 모친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민지영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개탈의 투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치적 적수를 투표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사연을 조작한다. 이 에피소드는 다원주의적 숙의가 배제된 플랫폼 시스템이 사실은 특정한 권력자의 사적 의지를 대중의 일반의지로 위장하는 통치 도구로 손쉽게 전락할 수 있음을 폭로한다.

이러한 사형투표 플랫폼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사형 투표 대상인 이민수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다.

정의? 그만 개소리 짓는 거 아니지? 권석주는 나 죽이고 싶어서 당신들 다 공범으로 끌어들인 거야! 다 같이 저질러야 벌을 안 받으니까! 말만 번지르르하지, 지들 처 재밌어서 누르려는 거 알아! 손가락만 까딱하면 사람 뒤통이까 재밌지? 흥분돼서 미치겠지? (...) 사람 몇 명 죽인다고 세상 안 바뀌어.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그냥 니들 사는 게 엇같으니까 나한테 화풀이하려는 거잖아! (10화)

이 조롱 섞인 대사는 투표에 참여 대중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특히 “니들 사는 게 엇같으니까”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대사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서 누적된 대중의 구조적 피로감이 사법적 불의를 명분 삼아 특정 대상에게 사적으로 투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판은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자 “난 그냥 투표한 것뿐인데”라며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중의 모습을 통해 고스란히 입증된다. 결정 능력과 윤리적 책임감으로부터 분리된 대중의 참여는 인민을 기만하는 공허한 행위에 불과하며, 타인의 죽음에 동조했다는 무거운 도덕적 짐은 익명화된 클릭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³⁷⁾

그러나 텍스트 자체가 지닌 자기반성적 서사는 대중문화의 소비 논리 속에서 성찰적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무력화된다. 갈런드가 지적하듯 후기 현대의 통제 문화 속 대중은 공적 사법 기구의 구멍을 체화하고 있으며, 복잡한 숙의 제도를 우회하여 직접 처벌권을 행사하려는 포퓰리즘적 열망을 드러낸다.³⁸⁾ 시스템의 위기와 내분은 장르적 스펙터클의 서스펜스를 증폭시키는 오락 상품으로 변환될 뿐이다. 대중은 화면 속에서 “죽어 죽어”를 외치며 찬성을 누르는 군중의 모습에 동조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개탈 굿즈를 소비하며 팬덤에 기반한 연대를 표방한다. 결국 구조적 모순을 향한 집합적 에너지는 플랫폼이 설계한 개별화된 클릭의 반

37) 웬디 브라운, 앞의 책, 169면.

38) David Garland, Ibid., pp. 142-143.

복 속에서 분산되고, 사법 불신이 낳은 절박한 분노는 정치적 행동이 아닌 콘텐츠 소비의 쾌락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국민사형투표〉가 보여주는 정의의 플랫폼화는 공적 가치를 논의해야 할 대중의 분노를 알고리즘의 데이터 수치로 환원하고, 비판적 자성마저 서스펜스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사법 불신이 낳은 분노와 공론장의 숙의 과정은 단 한 번의 액정 터치로 압축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 속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재편된 대중은 오직 스마트폰 뒤에 숨어 윤리적 책임 없이 찬반의 표를 던지고 그 처벌의 결과만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며 정치적 주체의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한다.

5. 나오며: 소비되는 정의와 정치적 주체의 증발

본고는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를 통해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누적된 사법 불신과 위협의 개인화라는 구조적 조건속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를 탈정치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외주화, 이원화, 플랫폼화라는 세 양식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시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다. 이 세 양식은 공권력의 구조적 공백이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출현한 동시적 결정체들로서, 복수를 각각 사적 계약, 초월적 폭력, 알고리즘 다수결의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시장에 위탁된 정의는 자본 없는 자를 배제하며 계급화되고, 초월에 위탁된 정의는 시민을 수동적 목격자로 고정시키며, 플랫폼에 위탁된 정의는 윤리적 책임을 익명화한다.

이러한 탈정치화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공공선을 숙의하던 호모 폴리틱우스가 소멸하고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주체가 전면화된 현실이 자리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원주의적 갈등을 거쳐 합의되어야 할 정의는 각각의 서사 구조 안에서 철저한 비용-편익과 효율성의 논리로 재편된다.

결론적으로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적 복수의 시스템화는 대중에게 극단적인 장르적 쾌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야기한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서 텍스트 내부의 명시적인 자기반성적 서사는 사적 복수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비판적 제동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무지개운수 사설 감옥의 잔혹성, 한다운의 신념 붕괴, 사형투표 대중을 향한 이민수의 조롱은 사적 제재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성찰적 재현의 징후들이지만, 이 비판적 긴장은 카타르시스를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며 탈정치화의 일부를 이룬다. 자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뒤이어 도달하는 초법적 단죄의 스펙터클은 한층 정당성을 얻으며, 대중의 정당화된 구조적 분노는 개인화된 계약, 시각적 가학, 익명화된 클릭이라는 포섭된 소비 행위 속에서 방전된다. 결국 텍스트의 성찰성은 시장의 통치합리성 안에서 무력화되며, 공동체의 가치를 숙의해야 할 호모 폴리ტი쿠스를 증발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완성하게 된다.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 반복 순환하는 가해자의 악마성과 피해자의 무고함이라는 기호는 대중의 역겨움과 공포를 동력 삼아 폭발적인 정동 경제의 회로를 가동한다. 이 정동 경제의 메커니즘이 분석적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의 위협이 실재할 때조차—즉 대중의 정당한 격분을 기반으로 삼을 때조차도—기호의 반복 유통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한 탈정치화 효과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 있다. 실제적 위협과 결부된 정당한 분노를 즉자적인 처벌적 정동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사회 구조적 개혁을 향해야 할 집합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 이것이 2020년대 한국 사적 복수 서사가 갖는 탈정치화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서사 내부의 성찰성마저 이 견고한 정동 경제의 스펙터클 회로에 포섭됨으로써 사법 불신이 야기한 대중의 에너지는 거시적 모순을 혁파하지 못한 채 사적 비즈니스의 계약, 시각적 가학의 관람, 익명화된 클릭이라는 개별화된 소비 행위로 방전되고 만다.

이처럼 복수의 시스템화는 공적 가치를 숙의하고 연대하는 정치적 주체인 호모 폴리티쿠스가 대중문화 안에서 어떻게 증발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대중의 정당한 분노마저 탈정치화 기제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이 대중문화 전반에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시대 복수 서사와 길항하는 서사 양식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사법 불신의 정동을 구조적 개혁을 향한 공론장의 에너지로 재전환하는 조건에 대한 탐구 등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모범택시〉(SBS, 2021), 〈지옥에서 온 판사〉(SBS, 2024), 〈국민사형투표〉(SBS, 2023)

2. 논저

권양현, 「TV드라마 〈상어〉에 나타난 파국의 징후와 구원의 가능성」, 『드라마연구』 47, 한국드라마학회, 2015, 5-33면.

김규연, 「2010년 웹툰의 반응웅 서사 연구: 영웅성과 사적복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인문융합콘텐츠전공, 석사논문, 2023.

김륜희, 「한국 장르물 드라마의 발전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1), 한국콘텐츠학회, 2024, 159-172면.

김윤진,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망: TV 드라마 속 사적 제재의 정당화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박노현, 「복수사회, 법치와 정의의 무능과 복수라는 권능: 드라마 〈모범택시〉·〈3인칭 복수〉·〈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2(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35-65면.

박상완, 「공권력에 의한 사적 제재의 수행 원리와 아젠다 고찰: 〈나쁜 녀석들〉, 〈비밀란테〉, 〈지옥에서 온 판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8,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199-225면.

백소연, 「〈모범택시〉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 『문화와 융합』 4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025-1042면.

신주진, 「복수 정동의 이행 구조 연구—2000년 이후 한국 TV드라마 ‘복수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이다운, 「박재범 드라마 연구: 반응웅 3부작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7),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321-336면.

정술·유정란, 「〈지션전〉과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로 본 지옥 서사의 변용과 그 의미」, 『공존의 인간학』 14,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5, 377-410면.

하예준, 「분열된 영웅의 사회 : 『살인자』 난감, 『비밀란테』의 반응웅 서사 연구」, 『한국말글학』, 한국말글학회, 2024, 35-51면.

3. 국외 논문 및 단행본

- 닉 서르닉, 심성보 옮김, 『플랫폼 자본주의』, 킹콩북, 2020.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 스티븐 파인먼, 이재경 옮김, 『복수의 심리학: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반니, 2018.
- 얀 베르너 뮐러, 노시내 옮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그가 말하는 ‘국민’ 안에 내가 들어갈까』, 마티, 2017.
-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물결, 2006.
- 웬디 브라운, 배충효·방진이 옮김, 『민주주의 살해하기』, 내인생의책, 2017
- 조르주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카스 무테, 크리스토팔 로비라 칼트바서, 이재만 옮김, 『포퓰리즘』, 교유서가, 2019.
- 칼 슈미트, 김항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 2010.
- David Garland,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01.

<Abstract>

Systematization of Private Revenge and
Depoliticization of Justice in the Neoliberal Era
– Focusing on *Taxi Driver*, *The Judge from Hell*, and *The Killing Vote*

An, Heayun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in which private revenge narratives in 2020s Korean television dramas evolve beyond simple personal retribution into a robust system, examining how this evolution depoliticizes justice in the neoliberal era. To this end, the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of outsourcing, dualization, and platformization of private revenge, focusing on the series *Taxi Driver*, *The Judge from Hell*, and *The Killing Vote*. Specifically, by synthesizing David Garland's concept of expressive justice, Wendy Brown's critique of neoliberal rationality, and Sara Ahmed's framework of affective economies, the analysis elucidates the causal chain through which the public's punitive sentiments are captured within the consumption circuits of the spectacle.

First, *Taxi Driver* exemplifies the “outsourcing of justice,” where revenge is transacted through rigorous cost calculations. In this process, justice is reduced to a consumable commodity, and citizens are repositioned not as political subjects deliberating on public values, but merely as consumers of private business services.

Second, *The Judge from Hell* tracks the “dualization of justice,” wherein an insider of the judicial system voluntarily suspends the law's efficacy to exercise transcendental violence. Combining Carl Schmitt and

Giorgio Agamben's logic of the state of exception with Ahmed's performativity of disgust, the analysis demonstrates how utterances of disgust fixate perpetrators as objects of exclusion, while simultaneously forming a community of onlookers and anchoring the public in the position of passive spectators.

Third, *The Killing Vote* reveals the "platformization of justice", where private sanctions are integrated with digital interfaces and majority-rule algorithms. Through the affective politics of fear and crisis-mongering that exploit public distrust of the judiciary, the study diagnoses symptoms of digital populism, where justice—which should remain an object of political deliberation—is replaced by binary voting metrics.

In conclusion, while the systematization of private revenge depicted in these three texts provides the public with extreme catharsis, it ultimately functions as an ideological mechanism that conceal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underpinning judicial distrust. Even the explicit self-reflexive critique and critical distance embedded within the texts are subsumed by the affective economic circuits of the mass culture market and neutralized into mere spectacles. Consequently, homo politicus—the political subject that ought to deliberate on communal values—mutates and evaporates into a consumer (outsourcing), a passive spectator (dualization), and an anonymous clicker (platformization).

Key words: Taxi Driver, The Judge from Hell, The Killing Vote, Private Revenge, Depoliticization, Affective Economies, Neoliberalism, Homo Politicus

투 고 일: 2026년 5월 15일

심 사 일: 2026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6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6년 6월 28일